



오늘, 복지농촌건설과 농민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유종탁 농림수산부 차관님과 평소, 양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는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입법부의 국회의원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께서 분망하신 일정중에도 우리들의 뜻깊은 행사에 참석하시어 축하와 격려를 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전국 양돈인의 이름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친애하는 전국의 양돈인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양돈인으로서의 존재의지가 투철한 전국 양돈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으로서 양돈산업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우리의 양돈회관을 개관함으로써 양돈산업 역사의 새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10억여원의 회관건립기금 조성에 앞장서 주신 전국 양돈인의 확신과 성원에 대하여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양돈산업은 자급농 단계를 완전히 벗어난 상업농 단계에 접어 들어 괄목할 만한 성장과 발전을 이룩하였으며, 이제 양돈의 생산성은 세계적 수준에 육박하여 양돈과 종돈의 수출국으로 부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돈인의 의식수준도 급진적으로 향상되어 업계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코자 노력하는 단계에 접어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발전적 여건의 조성은 전국 양돈농민을 지도하고 성원하여 주신 정부당국과 의회의 관계의원, 그리고 학계, 관련업계의 협력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전국의 지도급 양돈인 여러분의 깊진 희생과 봉사의 결과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돈육의 수급조정을 통한 양돈산업의 경영안정과 양돈인의 권익보호, 수출 주도적인 한국경제의 고도성장과 시장개방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양돈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 시장개방의 선결요건인 자국산업의 보호와 생존을 위한 정책적 지원확보, 양돈인 모두가 자조적으로 추진해야 될 양돈산물의 품질향상과 돈육의 수요유지 및 국내외 시장개발을 위한 프로모션 사업, 가까이는 미구에 불어닥칠 양돈업계의 불황 극복문제 등 산적한 문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읍니다.



전 동 용
(대한양돈협회 회장)

미구에 불어닥칠 양돈업계의 불황극복
문제 등 산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체회관을 마련하였던 슬기와 역량을
한데 모아 이를 극복합시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자체회관을 마련하였던 슬기와 역량을 한데 모아 이를 극복하고 돌파할 때, 우리는 새로운 도약적 발전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친애하는 전국의 양돈인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양돈업계의 지도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 이와 같은 문제해결의 산실 역할을 담당할 회관을 마련하였으나, 이는 이제 시작에 불과할 뿐입니다.

앞으로 본회는 이를 계기로 양돈인 모두가 산업발전의 주체적 역할을 담당토록 하며 스스로의 이익보호와 양돈산업의 국가와 사회의 산업적 기여를 위한 조직적 활동을 강화하고 기술 및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산업의 효율증가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장단기의 대책수립과 정책개발에 끊임없는 활동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일기도 불순한데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같이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양돈인 여러분의 사업 번영과 가정의 만복을 빌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1987. 7. 16